

예수회 센터 성경대학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 요한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성경대학 요한복음3 <일정표>입니다.

6월				29일
7월	6일	13일	20일	

첫 번째 고별사(계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14,13-14)

(8)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내가 아버지께 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14,16-17)

- (1) 보호자는 파라클레토스(para,klhtoj)를 가리킨다.
- (2)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을 가리킨다.
- (3) 파라클레토스의 적당한 번역은?
- (4)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 ① 예수님 대신 “오시는 분”
 - ② 예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다른 파라클레토스”)
 - ③ 교회시대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 (5)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 ① 제자들과 관련해서: 교사로서의 역할
 - ② 세상과 관련해서: 증인과 고발자로서의 역할
- (6) 우리 자신을 위한 성찰: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모시고 있는가?
 - ① 성령님은 사물이 아니다.
 - ② 성령 충만은 양적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아니다
 - ③ 성령님은 ‘그것’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 (7)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뤄지기 위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14,18-20)

- (1) “다시 오겠다”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 (2)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계명들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14,21-24)

- (1) “내 계명들” “내 말” “내 말들”
- (2) 사랑과 순명은 하나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14,27)

- (0) 모든 축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평화의 축복이다
- (1) 평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유산(遺産)
- (2) “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안전과 평화는 다르다
- (3)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평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 (4) 생의 폭풍우 속에서 누리는 평화
- (5) 주님이 아닌 어디에서 평화를 찾는단 말인가?
- (6) 주님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독소는 죄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14,28-31)

- (1)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기뻐해야
- (2)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위대하신 분”

(3) “일어나 가자”

① 고별사들(13-16장) 안에서 서로 충돌되는 내용들

② 고별사들(13-16장) 안에서 서로 반복되는 내용들

◆ 해결안

(4) 요한복음 13-16장 안에는 세 개의 고별사가 들어가 있다

① 첫 번째 고별사(13,31-14,31)

② 두 번째 고별사(15,1-16,4a)

③ 세 번째 고별사(16,4b-33)

두 번째 고별사(요한 15,1-16,4a)

15장 ¹“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²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³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⁴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⁵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⁶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15,1)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15,5)

(1) 두 번째 고별사가 나오게 된 사연

(2) 일곱 번이나 반복된 “나는 ... 이다”의 계시

“나는 생명의 빵이다.”(6,35-41)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나는 양의 문이다.”(10,7-9)

“나는 착한 목자다.”(10,11-14)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15,1)

(3) 요한복음 저자는 왜 일곱이란 숫자를 선호하는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15,2)

(1) 포도농사에서 필요한 두 가지 작업:

가지 잘라내기 ↔ 가지 손질하기/가지치기

(2) 가지 잘라버리기와 가지 손질하기에 대해서

(3) 잘라버려지는 가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4)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5) 인내를 키우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15,2)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15,8)

(1)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열매를 발견하고자 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15,4-5)

(1)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비법(秘法)

(2)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은 헛수고다

(3) 예수님 없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